

앞치마를 두르는 데 오십 년이 넘게 걸렸다. 넥타이를 매는 일은 평생 익숙했다. 거울 앞에서 매듭을 고쳐 맨 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오래된 착각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늘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구김 하나 없는 셔츠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계절이 바뀌면 옷장 속 풍경도 어느새 달라져 있었다. 깨끗한 집, 정갈한 식탁, 포근한 이불.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다.

아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시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선을 훌쩍 넘긴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부엌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 잠이 깼다.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냄비에서는 국 끓는 소리가 났다. 거실로 나가 보니 아내가 빨래를 널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처음으로 보았다. 조금 굵은 어깨. 거칠어진 손끝. 가족의 하루를 먼저 시작해 온 사람의 지친 얼굴.

나는 내 나이 든 모습은 걱정하면서도 아내가 늙어 가는 모습은 바라보지 못했다. 어느덧 검은 머리 사이로 주책맞게 비집고 나오는 새치,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위암 수술까지 겪어야 했다.

그날 아침, 나는 조용히 앞치마를 꺼냈다. 꽃무늬가 희미해진 낡은 앞치마였다. 손때가 땀 끈을 잡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다. 허리에 둘러 끈을 묶으려 했지만, 자꾸만 엉켰다.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때 뒤에서 아내가 다가와서 웃으며 내 앞치마 끈을 묶어 주었다. 묶어봤어야 알 텐데 처음 하는 것이라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만 했다.

생각해 보니 아내는 평생 내 넥타이를 고쳐 주고 와이셔츠 깃을 펴 주었다. 그러나 나는 아내의 앞치마 끈 한 번 묶어 준 적이 없었다.

결심하기까지 망설였다. 전자제품 하나 제대로 돌려본 적이 없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내와 내가 친자식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남매를 거두기로 하면서 부엌일을 해보리라 결심했고 부엌에 섰다.

칼을 잡은 손은 서툴렀고, 달걀 하나 깨는 일도 생각보다 어려웠다. 기름이 튀어 손등이 따끔거렸다. 밥물 대충을 하지 못해 어떤 때는 죽이 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밥이 설었다. 미역국을 끓였는데 인분을 착각해 50인분 미역국을 끓여 일주일 내내 먹기도 했다.

아내는 이 어려운 요리를 어떻게 한 것일까? 대충 설렁설렁해도 맛이 있건만 스마트 폰을 검색해 레시피 대로해도 맛이 시큰둥했다. 아내는 뜨거움을 얼마나 오래 견뎌 왔을까.

그날 요리를 배우려고 했지만 어찌다 보니 아내의 시간을 배웠다.

세탁기를 돌리는 일도 마찬가지로였다.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끝나는 줄 알았던 일이 아니었다. 옷을 구분하고, 주머니를 확인하고, 빨래가 마른 뒤에는 하나씩 정성스럽게 접어야 했다. 수건 하나를 반듯하게 접는 것도 쉽지 않았다. 빼놓아진 수건을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이 났다. 나는 평생 아내의 수고는 너무 쉽게 접어 두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

청소기를 밀 때도 그랬다. 소파 밑에서 먼지가 나왔다. 식탁 아래 작은 부스러기가 보였다. 깨끗한 집만 보았지, 그 깨끗함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는 보지 못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나는 더는 집안일을 아내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아내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도움이라는 말에는 여전히 주인과 손님이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집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고, 그 안의 일 역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었다.

어느 저녁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준비했고, 아내는 옆에서 채소를 씻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밥을 만들고 한 사람이 기다리는 식탁이었다.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든 하루가 식탁 위에 놓였다. 식사를 마친 뒤 내가 물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아내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존중은 높임말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어색하게 높임말을 쓰고 보니 그런대로 중년의 부부 운치가 났다.

“그 말을 들은 지 오래됐네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먹먹해졌다. 아내가 원했던 것은 값비싼 보석도, 화려한 선물도 아니었다. 자신의 하루를 알아주는 사람.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갈 사람이 필요했다.

오늘도 나는 앞치마를 두른다. 밥을 짓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빨래하기 위해서만도 아니다. 평생 가족의 하루를 먼저 준비했던 사람에게 보내는 작은 약속이다.

고맙고. 미안하기에 이제는 가족을 섬기겠다고 생각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섰는데 예전 같았으면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음식물 봉투 버리는 곳까지 가는 동안 여러분의 남성분들을 만나 용기를 얻게 되었다.

첫술에 배부를까? 노력하다 보면 밥 짓는 일도, 빨래하는 것도, 그리고 청소하는 것도 익숙해 지리라. 양성평등은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따사로운 햇살의 응원을 받으며 쓰레기장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경쾌하게 노래를 한다.